

주보

2025. 5. 4.

위임목사 **이영훈**

(Senior Pastor Rev. Younghoon Lee)

부 목 사 **양승호**(목회) **백근배**(교무) **고영웅**(개척)

◆ 2025 표어 ◆

오직 말씀으로

◆ 2025 교회목표 ◆

1.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2.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3.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EIDO FULL GOSPEL CHURCH



국제교단 연합·하느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성찬예배순

2025. 5. 4.

Communion Sunday Worship Service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Invocation		Presider
찬송	8장(통9장) 4절	다같이(일어서서)
Hymn	Hymn No. 8 v. 4	All Together(Please Stand)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일어서서)
Confession	The Apostles' Creed	All Together(Please Stand)
찬송	1부:545장, 2·3·4부:570장, 주일저녁:401장	다같이
Hymn	(통344장) (통453장) (통457장)	All Together
기도		기도자
Prayer		Prayer
성경봉독		사회자
Scripture Reading		Presider
	1부 요(John) 1:25~34	2·3·4부 눅(Luke) 18:15~17
	5부 대학청년 요(John) 7:37~38	주일저녁 삼하(2Sam.) 24:2
찬양		찬양대
Anthem		Choir
설교		설교자
Sermon		Preacher
1부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양승호 목사
	Faith Alone Is the Key to Victory	Rev. Seungho Yang
2·3·4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이영훈 목사
	Faith like That of Little Children	Rev. Younghoon Lee
5부 대학청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수황 목사
	If Anyone Is Thirsty	Rev. Soohwang Oh
주일저녁 재앙을 그치려면		황혁 목사
	To Stop the Plague	Rev. Hyeok Hwang
기도와 결신		설교자
Prayer & Altar-Call		Preacher
성찬	229장	다같이
Communion	(통281장)	All Together
헌금기도		기도자
Offering		Prayer
찬송	주기도문(635장)	다같이(일어서서)
Hymn	The Lord's Prayer	All Together(Please Stand)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오늘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이하줄임)
(눅 18:15~17)

사 회

1부 07:00 김 진 태 목사
2부 09:00 김 형 건 목사
3부 11:00 변 원 중 목사
4부 13:00 권 성 민 목사
5부 14:30 이지영B 목사
대학청년
주일저녁 17:00 이 미 옥 목사

대표기도

1부 박 경 규 장 로
2부 김 규 범 장 로
3부 유 병 출 장 로
4부 임 임 택 장 로
5부 조 동 현 장 로
대학청년
주일저녁 김 형 진 장 로

헌금기도

1부 임 성 우 안수집사
2부 백 형 주 안수집사
3부 최 원 림 안수집사
4부 백 균 탁 안수집사
5부 양 정 우 성 도
대학청년
주일저녁 오 세 형 안수집사

수요일예배순

2025. 5. 7.

Wednesday Worship Service

사 회 / 1부 10시 10분 김민철A 목사 2부 13시 40분 최윤선 목사 3부 19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1부·2부: 288장(통204장) 다같이
기도 1부: 조영남 장로 2부: 박상훈 장로
성경봉독 1부·2부: 행(Acts) 13:1~3, 3부: 요(John) 11:41~42 사회자
찬양 1부: 베데스다 찬양대 2부: 시온 찬양대 3부: 호산나 찬양대
설교 안디옥 교회의 영광 1부: 이영훈 목사 2부: (스크린)
들으시는 하나님 3부: 신동석 목사
헌금기도 1부: 유세종 안수집사 2부: 박순정 안수집사

금요일성령대망회순

2025. 5. 9.

Friday Night Holy Spirit Prayer Meeting

사 회 / 안현주 목사 20시 30분
기도 양복현 장로
성경봉독 행(Acts) 20:22~24 사회자
찬양 갯세마네 찬양대
설교 고난 극복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양승호 목사

토요일예배순

2025. 5. 10.

Saturday Worship Service

사 회 / 김민구 목사 10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요(John) 4:24 사회자
찬송 400장(통463장) 다같이
기도 윤남근 장로
성경봉독 욥(Job) 1:13~22 사회자
찬양 가브리엘 찬양대
설교 시험을 이긴 욥의 신앙 백근배 목사
헌금기도 안남규 안수집사

금주의 찬양

Choir Anthem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구 분	찬양대명	지휘자	찬 양
주일1부	베 다 니	강 내 우	내 목소리 낮출 때	수 요 1부	베 데 스 다	김 호 식	어머니의 사랑
주일2부	베 들 레 험	데이비드 이 (객원지휘)	어린이와 같은	수 요 2부	시 온	조 현 호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주일3부	예루 살렘	여 자 경	주와 같이 걸 가는 것	수 요 3부	호 산 나	윤 규 섭	어린 아이와 같이
주일4부	나 사 렷	이 중 진	주와 함께	금요일예배	갯세마네	송 성 철	주는 나의 목자
5부 대학청년	원 마 누 엘	이 수 범	어린이와 같은	토요일예배	가 브 리 엘	이 용 중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주여
주일저녁	에 벤 에 셀	김 영 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Faith like That of Little Children)

눅(Luke) 18:15~17

어린 아이들은 가정의 꽃이며 희망이고 행복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1.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Jesus, who cherished the little children)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사람 수에 포함하지 않을 만큼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이를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8:15~16).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변의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2.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Faith, which is like that of the little children)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8:17).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며 오직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마 11:25). 그러므로 쉽게 불평하는 모습에서 돌이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기와 교만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신앙 (Faith, which is humble like that of the little children)

천국은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이와 천국에서 누가 큰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책망하시며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20:26~27). 섬김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이해하며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세상을 구하셨듯 우리도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순수함과 낮아짐을 배우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News Board

◆국가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5월 31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 장소: 대성전 / 설교: 이영훈 목사

예 배

1. 다음 주일은 아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 5월 첫째주 새벽예배
일시: 5월 5일(월)~9일(금) 새벽 5시 / 장소: 대성전 / 설교: 김형건 목사(5일~7일), 변원중 목사(8일~9일)
3. 제30회 영산호행사 시상식-일시: 5월 11일(주일) 오후 1시(4부예배) / 장소: 대성전
4. 남선교회 5월 헌신예배-일시: 5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바울성전 / 설교: 김용준 목사
5. 장로회 5월 장로기도회-일시: 5월 16일(금) 오후 7시 / 장소: 뽕엘성전(세계선교센터 7층) / 설교: 신성남 목사

모 집

1. 한세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원 후기 1차 신(편)입생 모집-문의 ☎ 031-450-5189
접수: 5월 12일(월)~23일(금) / 면접 및 실기고사: 5월 30일(금)~31일(토) / 홈페이지-http://graduate.hansei.ac.kr

안 내

1. 오늘 결산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베들레헴성전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새가족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등록 및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교회학교 2025년 교회학교의 날-일시: 5월 5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대성전 외
3. 복지사업국 제1기 순복음 부부행복학교
일시: 5월 17일(토)~6월 7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제1교육관 10층 세미나실
4. '신앙계' 5월호가 나왔습니다. 구독하신 후 성경공부 및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행위(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권유 및 금전거래를 금지합니다.

▣ 다음 주간(5/11, 5/14, 5/16, 5/17) 대표기도(장로)

주일예배(5/11)						수요일예배(5/14)	1부:우상선 2부:김태봉
1부	2부	3부	4부	5부 대학청년	주일저녁	금요성령대망회(5/16)	박태준
이우돈	이주억	김태권	장세동	진철용	김재경	토요일예배(5/17)	이기석

▣ 교회 대표전화 (주간) ☎ 02-6181-9191, (야간) ☎ 02-6181-9000~3

▣ 의례팀(장례 상담 및 조화 신청 시간 07:00~20:00) ☎ 02-6181-6533

무엇을 바라보는가?

19세기 미국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는 첫 아내를 병으로, 두 번째 아내를 화재 사고로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 찬가」와 같은 아름답고 희망적인 시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누군가 그에게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롱펠로는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늙었지만, 해마다 늙은 가지에서 새순이 돌아나 탐스러운 사과를 맺지요. 저 나무가 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시든 ‘고목’이 아닌, 그 안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강인한 ‘새순’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선이 롱펠로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신을 한계에 부딪힌 ‘고목’처럼 느끼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분명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새순’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고목’이라 여기면 고목처럼 시들 것이고, ‘새순’이라 믿으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롱펠로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시를 피워냈듯, 우리도 마음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채울 때 인생에 분명 싱그러운 새순이 돌아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안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독교 대한 아-남의 성회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15, Gukhoe-daero 76-gil, Yeongdeungpo-gu, Seoul

교회 대표번호 ☎ 02-6181-9191